

7

바이오 인증 기술의 두 얼굴



◆ 적절한 근거가 드러나게 나의 의견을 써 봅시다.



그림을 보고 본인 인증 과정에서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바이오 인증 기술, 일상 속으로

“은행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인출이 가능해요.

가장 전통적인 통장부터 각종 카드, 스마트폰으로 인출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다음 단계도 우리 일상 곁에 다가왔네요.”



얼굴 생김새, 눈동자 등 개인 정보를 이용해 잠금을 푸는 것은 한때는 영화 속 기술이었지만, 더는 아닙니다. ○○은행이 시험적으로 도입했던 ‘손으로 출금’ 서비스를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이 서비스는 은행 창구에 놓인 휴대전화 크기의 전자 기기에 손바닥을 대면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바이오 인증 서비스예요. 개인마다 서로 다른 손바닥 정맥이 신분증 역할을 하니 신분증은 물론 통장, 비밀번호도 필요 없죠. 처음에 바이오 정보만 등록해 두면 본인 인증에 걸리는 시간은 단 1초. 지금까지 5만 명이 이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손바닥 정맥 바이오 인증 기술은 인터넷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도 유용할 거라는 기대가 높아요. 어르신들이 깜빡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오거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더라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 위원회는 법까지 바꿨대요. 예금을 지급할 때 통장이나 인감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아예 삭제했죠. 특혜는 아니에요. 손바닥 정맥 인증이 도장보다 훨씬 보안성이 높고, 성장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바이오 인증 기술이 잘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중국에서는 안면 인식 바이오 인증 기술의 소비자 반응이 미묘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QR 코드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매우 발달해 있는데, 이와 연동해 고객의 얼굴을 인식하고 결제하는 안면 인식 바이오 인증 결제기가 야심 차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이용률은 낮았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손의 정맥과 달리, 얼굴 사진을 거래용으로 등록한다는 사실에 중국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바이오 인증 기술의 최대 약점은, 개인 정보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비밀번호나 아이디가 노출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체 정보가 노출된다는 부분이에요. 손의 정맥 사진 정도라면 아직 괜찮지만, 얼굴 사진을 온라인에 등록한다는 건 거부감이 훨씬 강했던 거죠.

다른 하나는 시스템의 준비 부족입니다. 기존의 결제 서비스와 달리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의 연계 기능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은 더욱더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모두 시장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잘 와닿네요.

1 「바이오 인증 기술, 일상 속으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은행에서 활용하는 바이오 인증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2 중국에서 안면 인식 바이오 인증 결제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바이오 인증 기술의 관점을 찾아 비교해 봅시다.

긍정	부정
-----	-----
-----	-----
-----	-----
-----	-----
-----	-----
-----	-----

3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글자표에서 찾아 써 봅시다.

불	연	애	예
직	인	출	금
정	맥	미	요
말	오	묘	일

• 금융 기관에 맡긴 돈을 찾음.

• 딱히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게 야릇하다.

• 혈액이 허파 및 신체의 말초 모세관으로부터 심장으로 되돌아올 때 통하는 혈관

4 바이오 인증 기술에 대한 나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 써 봅시다.

5 「손가락에 심은 생체 칩」을 읽고 바이오 인증 기술의 발전을 생각해 봅시다.

손가락에 심은 생체 칩

손만 대면 문이 열리고, 쇼핑 결제가 되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내 신원이나 카드 정보가 담긴 작은 칩을 이 손가락에 심는 기술이 거의 실용 단계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이 소식을 보도합니다.

2012년 영화 「토탈리콜」에는 몸에 심은 컴퓨터 칩으로 전화를 하거나 기억을 저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래 카드 키를 대야 문이 열리는 자동차에 손을 갖다 대자 문이 열립니다. 손가락 엄지와 검지 사이에 심은 생체 칩 때문입니다. 벤 워크맨(생체 칩 사용자)은 실험과 호기심 때문에 생체 칩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생체 칩을 주사기로 피부 아래에 넣고 태그를 튀어나오게 했다고 합니다.

생체 칩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차 열쇠, 각종 카드 등의 정보를 하나의 칩에 담아 몸에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회사에서는 2년 전부터 직원들 손에 칩을 심어 출입증을 대체할 수 있게 했고, 스웨덴에서는 생체 칩으로 계산은 물론 비행기나 기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손뿐만 아니라 뇌에 칩을 심는 연구도 한창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생체 칩 활용 기술이 문명 차원에서 정말 중요하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 인간의 사이보그화라는 지적까지,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용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배움 다지기

- 적절한 근거가 드러나게 나의 의견을 썼나요?

